

<시조쓰기>

시조쓰기를 말씀 드리기 전에 시조에 대한 제 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백수 정완영선생님과 박재삼선생님께 시조에 대한 사사를 잠시 받았습니다.

1993년 박재삼선생님의 추천으로 한맥문학에서 시와 수필로 등단하고

2001년 7월에 나래시조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2001년 9월에 미주시조시인협회의 시조월드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시와 시조로 활동하였습니다.

1994년에 첫 시집<그리움은 안개로 뜨고>가 출간되고 이어 한영시집과 수필집

이 출간 되었고 2013년엔 정형시인 시조집 <바람결에 스치듯> 이 출간 되었습니다.

현재 9권의 서책을 상재하고 있습니다.

혹 제 시조집을 못 가지신 분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조(時調)란?

**시조(時調)는 한국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우리민족의 고유의 얼(魂)과 정서를 담아 오늘에 이르는 유일한 민족문학입니다.

문학의 한 장르인 시(詩)가 아니고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시(時)로 쓰는 이유는 당대의 정서와 시대상황을 담은 우리 문학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고려 말에 그 형식이 확립되었고, 조선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창작되어 온 우리민족의 고유의 정형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는 서양에서 들어온 자유로운 장르를 가진 자유시라 부를 수 있습니다.

*고시조(옛시조)...갑오경장 이전의 시조

*현대시조...갑오경장 이후 시조

시조의 기본 형식

*4음보의 율격 유지

*3장 6구 12음보의 45자 내외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글자 고정

*** 시조는 총 3장 6구 12음보로 되어있고

종장의 첫 음보는 3자 고정이 되어 있고 불변입니다. ***

1. 초, 중, 종장으로 되어 있다.

2. 형식에 맞아야 한다.(3 4 3 4. /3 4 3 4/ 3 5 4 3) 에서 1-3-4자 가깝가능.

3. 어떤 경우에도 종장의 첫 음보는 3자를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예,

---1구--- / --2구--

초장 : 비오자 장독간에 / 봉선화 반만 벌어

3 4 3 4

중장 : 해마다 피는 꽃을 / 나만 두고 볼 것인가

1 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종장 : **세세한** 사연을 적어 / 누님께로 보내자

3(불변) 5 ~9 4 3

* 초장 중장 종장 / 3장

* 각 장마다 4음보(3x4) / 12 음보

*각 장마다 2구 (3x2) / 6구

시조의 종류

*평시조 (*단시조~초장, 중장, 종장으로 된 한 수의 시.

 *연시조~단시조가 이어 두 수로나 세 수로 된 시조이며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야 함.)

*엇시조(평시조의 기본형식 내에서 초, 중장 중 어느 한 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

*사설시조(평시조의 기본형식 내에서 초, 중장의 두 장이 해학적으로 길어지는 형태)

*** 길이에 따라, 형식에 따라, 시조의 종류는 많으나 모든 시조의 형식에서 중장의 첫 음보의 3자는 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시조라 불리질 않는다.

** 현대에 와서는 평시조의 경우는 음보의 율격을 비교적 자유롭게 45자 내외에서 가감하며 쓰기는 하나 역시 중장의 첫 음보는 변화지 않는 3자의 엄격한 규칙에 있습니다.

몇 편의 시조를 읽어면서 평시조와 엇시조 등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예,

<평시조 중 단시조>

성불사의 밤

이은상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주승은 마저 잠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손아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야라

<평시조 중 연시조>

비

가람/ 이병기

짐을 매어놓고 떠나려고 하시는 이

날 어두운 새벽부터 시름없이 내리는 비

내일도 내려오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부디 머나먼 길 떠나지 마오시라

날이 저물도록 시름없이 내리는 비

적으기 말리는 정은 나보다도 더하오.

잡았던 그 소매를 뿌리치고 떠나신다

갑자기 꿈을 깨니 반가운 빗소리라

매어둔 짐을 보고는 눈을 도로 감오오. (한 맥락의 단시조를 연시조로 이어감)

<옛시조>

바람이 되어

추정/강숙려

바람처럼 그렇게 흘러 간

오후의 그늘에서

눈이 부시도록 또한 그렇게 울어대든 하늘자락에 차마 붙들지 못해 잡지도 못한 차가운 손,

나는 말하고 싶었다. 밖으로 나온 소리가 의미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 여름날은 가고 누군가 있어
소리의 의미를 알아지는 날 한움큼의 눈물 같은 것 뜨겁게 뿌리며 여기 이렇게 나는 설 것이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것들 모두 지우리라. 바람 한 점 고요히 수평을 흔드는 일 쫓 더러는 지나치고
더러는 흘러 보내리라. 이제 세월이 말해주는 삶의 지혜를 따라,

어깨에 스치는 바람처럼

그렇게 가리라.

** (한 소절을 길게 늘어 씀)

<사설시조>

<작자미상 제목 없음>

(그 시절엔 작자미상의 풍자를 해학적으로 쓴 노래 시들이 흘러 다녔다)

시어머님 며느라기가 나쁘다고 부엌바닥 쿵쿵 구르지 마오.

빛 대신 받아 온 며느리인가, 물건 값으로 받아온 며느리인가, 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난 사람처럼
매서운 시아버님, 별에 말라붙은 쇠똥같이 되바라진 시누이, 좋은 곡식 난 밭에 잡초로 난 사람처럼,

셋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가지고

기름진 발의 꽃 같은 며느리 어디를 그렇게 나빠하시려고.

3(불변) 5 ~ 8, 4~ 6 5~ 9

**병을 앓아 비실대는 아들 하나 둔 주제에 알뜰살뜰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며느리를 타박하는 시어머님에 대한 항변하는 며느리의 녀두리다. 해학이 그림처럼 꿈틀거린다.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풍자하여 쓴 노래 시 (엇시조와 비슷하나 긴 녀두리로 한을 푸는 방식. 사설시조)

** 끝으로,

시조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학에 입문하여 시로 혹은 수필로 소설로 그 길을 걷는 과정을 그냥 취미로 쓴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나 수필이나 기타 문학의 형식에 맞아야 하고, 쓰는 사람의 독창적인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 특유의 해석이 있어야 하고 독자에게 공감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지 반복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글의 함축성이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수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리듬을 타게 가감으로 다스리되, 시가 은연중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잘 조화된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작가는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글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여야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개성 강한 글을 쓰되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나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밖의 말, 뜻밖의 뜻, 풍경 밖의 풍경을 담을 수 있도록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불현듯 생각나는 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한번 놓친 글귀나 단어는 두 번 다시 나를 찾아오지 않아 애를 먹은 기억이 한 번쯤 있으셨으리라 여깁니다.

때론 그때에 붙든 한 단어는 부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서서히 부화기를 거쳐 한편의 시가 탄생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따끈따끈할 때 꼭 적어 두는 습관을 갖는다면 좋은 발전하는 시인이 되리라 여깁니다.

내 글의 첫 독자는 나 자신입니다.

발표할 때까지 2%의 부족에서 나는 늘 떨림을 갖습니다.

발표 이후의 뭉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독자의 판단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창작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어의 결핍, 감정의 결핍을 느낄 때 길을 떠나보세요.

사색하고 자극을 받아 더욱 기름칠을 하고 관찰하면 창작의 방향기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우주의 창조자이고

시인은 상상적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시조 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여 우리의 고유 정형시에 신경을 더 쓰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